

[한국 지방정부와의 특별한 만남]은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확대해 나가고 싶은 한국 지방정부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소개된 지방정부와의 교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담당자(stella JEON / mandookong1@gmail.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정부와의 특별한 만남

##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시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2012년 7월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올해 출범 8년차를 맞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 부처의 60% 이상이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9개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세계행정도시연합(WACA)을 구성하여 글로벌 행정도시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작성 : 세종특별자치시



## 01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또한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영국표준협회(BSI)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구축 확산 인증을 위한 세계 5개 시범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서 2030년까지 사업비 1,558억원을 투자해 주거·행정·연구·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스마트시티를 완성할 계획이다.

## 02 스마트농업 및 로컬푸드로 건강한 먹거리 구축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 농업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구축한 농촌형 혁신모델 세종 창조마을을 조성했다. 이로써 농업과 농촌의 창조적 성장을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생산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환경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하고 질 좋은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싱싱장터'를 운영한다. '싱싱장터'는 신선, 안전, 안심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150여 종의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등을 판매한다.

## 03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18세 이하 아동인구가 전체인구의 23.6%(81,436명/2020년 5월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아동인구가 많은 도시다. 이에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고자 임신, 출산, 돌봄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6년에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 04 세계의 행정수도, 스마트시티와의 교류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선진 행정수도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심이 되어 세계행정도시연합(WACA)을 구성하여 5개의 글로벌 행정도시들과 번영 및 화합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시성, 구이저우성, 터키 앙카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행정·문화·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교류도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일본 스마트시티와의 교류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한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